

< 예수님의 프로포즈 >

천국에서 영원히 살자는 시

작성일: 2010년 09월 05일. 새벽 1시경 받은 말씀.

작성자: 주 온 빛 (아산화목교회)

(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했습니다. 고백드리니 기뻐하시면서 '내가 나의 신부에게 프로포즈한다.' 말씀하시며 시 한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.)

< 예수님의 프로포즈 >

나의 사랑

내 말 좀 들어보요.

내 눈이 머물고

내 발이 머무는

사랑하는 나의 신부

내 말 좀 들어보요.

세상 부귀영화

온갖 보물 넘치지만

헛되고 헛된 것이니

그것 보며 침 흘리지 말고

나의 사랑보석

나의 마음보석

나의 심정보석

나의 진리보석

영원히 질리지도 않는

영원히 싫증나지도 않는

영원한 나 예수의 눈물의 보석 반지 받아주요.

6천 년간 새까맣게 그을린

하늘 아버지 애간장의 반지 받아주요.

금빛휘장 찬란한

성령 어머니의 부케 받아주요.

그리하여 영원히 행복한 내 나라 내 품에 거해주요.

내 사랑 나의 신부.

아 행복하여라.

그 나라 내 품에 거하는 나의 신부 생각하니

너무나 설레어

나는 오늘도 잠 못 이루며

달빛을 벗 삼아 별빛을 친구 삼아

지구촌 나의 신부 만나러 떠납니다.

사랑하는 나의 신부

내 품에 거할 그 날을 그리며

내 아픈 심정, 아픈 마음 싸매고

희망으로 설렘으로

천 년사 꿈을 안고 날아갑니다.

내 사랑

나의 사랑고백 받아주요.

내 사랑

나와 함께 영원히 내 품에 안겨 내 나라 빛내주요.

나의 사랑

때가되어 내 집 하늘천국에 없으면

내 마음 슬픔이고

그 좋은 천국도 슬픔이니

내 사랑 받아주요.

이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말고

나는 내 사랑만 바라보고

내 사랑은 나만 바라보는

영원히 행복한 그 날을 바라며

당신의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체

주 예수가 내 사랑에게 보냅니다.

사랑하는 나의 신부 섭리야.

내 사랑 받았느냐?

영원한 그 나라 그 좋은 천국에 데려와

영원한 기쁨 누리며 살고자 하는

너희의 영원한 신랑의 마음을 말이다.

이 마지막 역사 월명동을 멋지게 단장하듯

너희의 모든 삶을 멋지게 단장해

나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

온전하고 깨끗한 나의 1등 신부 되어다오.

사랑하고 사랑한다.

나의 자랑 선생을 통해 끝까지 배우고 완전히 실천해

그 좋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여라.

사랑한다. 사랑해.

천국의 주인인 너희의 영원한 보화 주 예수가. 안녕.